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구성요인 탐색

김효정¹, 박상완^{2*}

¹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 ²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ructur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Hyo-jeong Kim¹, Sang-wan Park^{2*}

¹Ddadeutan Educational Community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ivision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한국 고유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표로 교원문화와 학교의 조직문화를 설명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에 개발된 우리성 측정 도구를 한 도구를 토대로 초등학교 교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12월 1부터 27까지 B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 2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3과 Mplus 7.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우리성 인식구조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이며,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초등 교사들이 우리성을 느끼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성이 개인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반, 우리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와 교직원 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기초한 접근을 하고 있어 유아교육기관이나 중등,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탐색한 양적연구이다. 양적연구의 결과는 학교구성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정교화 하거나 현장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mponents of we-nes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new indicator based on the essential relationship of Korea to explain and improve the teacher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school. The subjects were 206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OVA,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ith SPSS 23,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Mplus 7.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wellbeing', 'caring relationship', 'ethical legitimacy', and 'sharing time' were derived as the factor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we-ness can be spread not only to individual relations, but also to the class, and to the same organization as a school, it can be used to form a school culture based on Korean culture and suggest a teaching cultur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examin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hence, the results cannot be applied to all teachers. In addition, this study was a quantitative study exploring the sub-factor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should be elaborated through interviews with school members, and follow - 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hrough case studies.

Keywords :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Ness, School Culture, Relationships, Educational Community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778)

*Corresponding Author : Sang-wan Park(Division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hspark@bnue.ac.kr

Received May 21, 2019

Revised June 17,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학교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전제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1]. 그래서 교사는 학생, 부모, 동료교사, 학교관리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에 만족하는가는 교사의 학교만족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2,3,4]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만족 [5,6,7,8]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가 구성원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교사와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와 만족도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의 인간관계가 아니며 학교라는 조직과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관계인 것이다. 또한 교사에게 관계성과 연대감은 '우리 학교', '우리 반'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집단 속에서의 관계성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을 전제로 하는 연대감에 주목하였고, 그것의 구성요인을 탐색하는데 한국 고유의 관계 특성인 '우리성'[9]에 주목하였다.

우리성은 '우리'라는 테두리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갖는 연결과 연대감의 특성이자 한국인 고유의 집단정체성을 말한다[10]. 지금까지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의 관계성, 학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리성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교사의 우리성 연구는 우리성과 학교조직 효과성[11]이나 직무스트레스[12,13]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거나, 교육공동체의 구현 방안으로 정과 우리의식을 재조명 하고 있는 연구[14], 그리고 유아 교사와 부모의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다루고 있는 연구[15]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다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유 정서에 기반을 둔 교사 관계성에 대한[15] 후속 연구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탐색하여 우리성을 느끼는 대상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탐색한 우리성의 구성요인은 한국 고유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교원문화와 학교의 조직문화를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인의 우리성

우리성이란 한국인의 우리의식, 공동체성, 가족주의 등을 사회심리학적으로 통합한 개념[17,18]으로 우리의식은 혈연 중심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대강과 친밀성을 다른 집단, 심지어 사물에게도 부여하고 확대하는 특성을 말한다. 한국인은 '나' 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관계 지향적이다. 한국인은 개인으로 분리되지 않은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혈연관계의 가족들에게 느끼는 것과도 같은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9].

이러한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정'과 함께 한국인의 고유성으로 심리학, 사회학, 민속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특히 S. J. Choi은 심리학을 기반으로 정과 우리의식에 대한 연구를 20년 이상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그의 연구는 주로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라고 느끼며 그렇지 않는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한국인의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탐색하였다. 그중 일본의 우리성과 비교하여 한국인의 우리성의 특성을 기술한 연구 [18]에서는 우리성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의하면, 한국인의 우리성은 정, 친밀감, 푸근함, 상호수용 등의 감정적 연대감과 하나됨, 동질감, 동류의식 등의 동질 유대성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우리성'은 집단귀속의식의 특징을 가진 일본의 '와레와레'와는 다른 인간관계에 뿌리를 둔 관계적 밀착의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인 고유의 관계적 특성인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성이 가지고 있는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과 편 가르기의 속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인적인 친분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논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성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한국인 고유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21]

2.2 교사의 우리성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학교, 학급에 대해 우리로 인식하며 그들과의 관계 또는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사의 우리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교사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수와 학습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차이는 교사의 역할과 교수역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예비 교사들이 미국 교사들에 비해 개별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었으며[24], 독일 예비 교사와의 비교 연구에서도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한국 교사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의 특성이 드러났다. 즉, 교사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인 특수성이 있으므로 한국인 교사의 관계 특성인 '우리성'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한국 교직사회에서의 교사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교사의 우리성은 직접적으로 학교효과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 교사는 우리성 인식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며 학교조직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11]. 우리성이 낮은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등[12,13] 우리성이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 대상 우리성 연구의 결과 한국인의 우리성 연구에서 우리성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고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특정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직 '우리성'의 개념이 등장했다[16] 조직 우리성은 조직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며 그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조직 우리성은 역할 기대와 같은 조건적 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행태 수정, 관계 파악 노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조직 차원에서 우리성 연구는 학교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우리성 모형 탐색 연구[15]의 가능성을 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학교조직 우리성 연구의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성의 하위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B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이며,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7일 까지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206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n=206)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56	27.2
	Female	150	72.8
Age	20~29	27	13.1
	30~39	55	26.7
	40~49	66	32.0
	50~59	49	23.8
	60~69	5	2.4
	Non-response	4	1.9
Career of teacher	1~5 Years	25	12.1
	5~10 Years	38	18.4
	10~15 Years	33	16.0
	15~20 Years	40	19.4
	More than 20 years	65	31.6
	No answer	5	2.4
The current period of working at school	1 Years or less	59	28.6
	1~2 Years	48	23.3
	2~3 Years	56	27.2
	3~4 Years	33	16.0
	More than 4 years	10	4.9
All		206	100

3.2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우리성의 구조를 밝힌 도구[19, 20] 를 토대로 초등학교 교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재구성 과정에는 사범대학 교수 1인을 포함한 교육학 박사 5인이 문항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한 문항은 2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일부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문항은 총 37문항이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실시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0.92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하위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25를 이용하였으며,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요인 회전은 요인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고자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고, 각 하위요인들 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초등 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의 하위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7.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초등 교사의 우리성 인식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재값이 .30보다 작은 문항을 삭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적절한 적합도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4. 결과

4.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초등 교사의 우리성 인식 요인을 도출하고자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를 살펴본 결과, .90로 문항간의 상관이 양호하였으며,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 $\chi^2=346.162(df=131, p<.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요인은 총 4개로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587~.982로 모든 문항이 .3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들의 요인구조는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추출한 요인들은 각 하위문항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의 관계성',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 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초등교사의 우리성 인식 4개 요인의 아이겐 값은 1.213~7.280으로 1.0 이상이며 전체 설명변량은 62.74%다. 구체적인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 Table 2. 와 같다.

첫 번째 요인인 '심리적 안녕감'은 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은 20) 서로 비슷하게 느끼고, 19) 자주 연락을 나누며, 10) 나를 즐겁게 해주고 6)비밀을 숨김없이 털어 놓을 수 있는 사이를 말하며, 14) 흥미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21)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사이이거나, 11) 만났을 때 즐겁고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는 사이로 심리적으로 편안하며 가깝고 비슷하다고 느끼는 요인이다. 이상의 7개 문항은 부하량이 .587~.858 사이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도 .912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n=206)

Spec.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Psychological wellbeing	20) Feel similar to each other	.858			
	19) Frequently contacted	.827			
	10) Amuse me	.770			
	6) Confide in secret	.705			
	14) Interests and interests are similar	.700			
	11) Praise me	.683			
	21) Participate in an event or meeting with me	.587			
Careful relationship	15) Consider your opponent		.885		
	7) Sincerely and faithfully		.768		
	16) Accept and empathize		.752		
	8) Respect privacy		.639		
Ethical justification	30) Treat me unfairly(R)			.791	
	31) Wrong way of doing things(R)			.739	
	32) Don't agree with my way of doing things(R)			.736	
	34) Not comfortable with being together (R)			.735	
	29) Treat me as computationally (R)			.699	
Sharing of time	1)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982
	2) Frequent meeting				.716
Eigen value		7.280	3.536	1.850	1.213
Cumulative variance (%)		17.444	40.422	55.784	62.742
Cronbach's α		0.912	0.859	0.851	0.900

(R) is the negative scoring question

두 번째 요인은 '배려적 관계'로 4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하위문항은 15)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7) 진지하고 성실하게 관계하며, 16)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8) 상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문항의 부하량은 .639~.885로 기준치로 제시되는 .50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역시 .85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요인은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총 5문항이 추출되었다. 하위문항은 역재점 문항으로 30)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31) 일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32) 나의 일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서 34) 함께 있을 때 불편하며 29)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적 정당성'의 5개 하위문항의

부하량은 .699~.791사이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1로 문항신뢰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마지막 요인은 '시간의 공유'이며 하위문항은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주 만나는 경우이며 두 문항의 부하량은 .719~.982로 기준치 이상이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역시 .900으로 높게 나타났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안된 4개의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모형의 상위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 Fig.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위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 우선 χ^2 값이 346.162로 유의수준(P=0.00)에서 유의하였으나 χ^2 값은 표본크

기의 영향을 받아 과도하게 평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를 확인하였다[22]. 따라서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는 CFI, TLI, SRMR, RMSEA 와 같은 다른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TLI와 CFI는 0.9 이상이고, SRMR과 RMSEA값 역시 0.8 이하로 나타나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우리성 인식요인의 4개 하위요인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그림은 Fig. 1.과 같다. 초등 교사들이 인식하는 우리성 인식구조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이며, 각각의 설명력은 .957, .657, -.243, 그리고 .622로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 시간의 공유, 윤리적 정당성 순으로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four factors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n=206)

Model	χ^2	df	p	χ^2/df	TLI	CFI	SRMR	RMSEA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346.16	131	.00	1.17	0.90	0.90	0.06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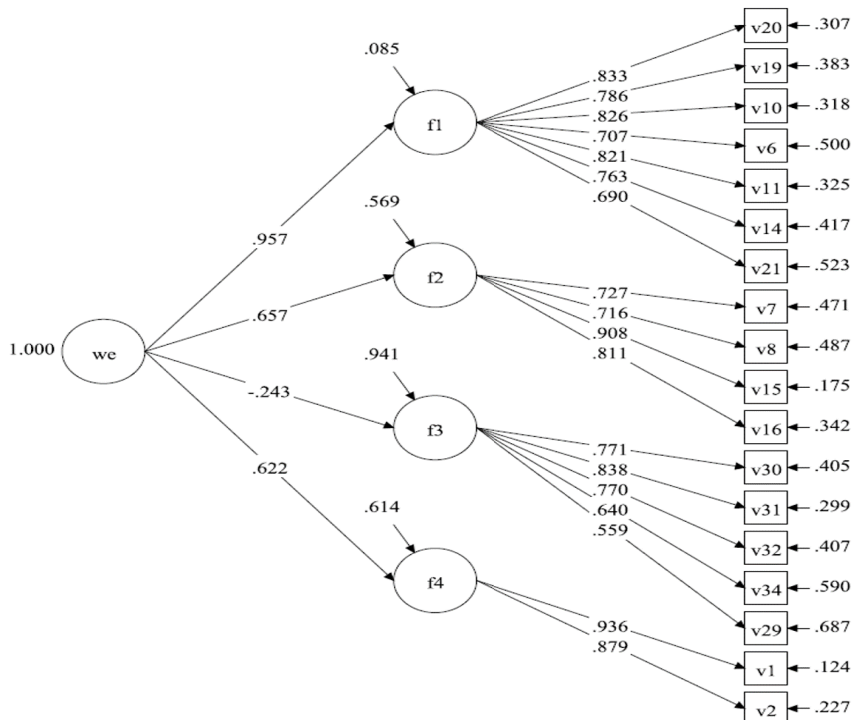


Fig. 1. Factor Structure model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factors of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Weness

	Psychological wellbeing	Careful relationship	Ethical justification	Sharing of time
Psychological wellbeing				
Careful relationship	.55***			
Ethical justification	.18*	.12		
Sharing of time	.55***	.37***	.10	

최종 도출된 초등 교사의 우리성 인식 요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r값이 .10~.55 사이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 요인 중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성', '시간의 공유'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윤리적 정당성'은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 교사들은 우리성이란,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상황과 배려적 관계를 지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이 윤리적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는 관계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성', '시간의 공유'와는 달리 '윤리적 정당성'은 관계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이므로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교사들의 인식하는 우리성의 인식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성의 개념과 우리성의 하위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우리성'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심리적 안녕감'이다. 도출된 하위문항은 '서로 비슷하게 느낌', '자주 연락을 나눔', '나를 즐겁게 해줌',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음', '비판보다는 칭찬을 함' '홍

미와 관심이 서로 비슷함', '행사나 모임에 함께 참여함'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우호적이며 가깝게 느끼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우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국인의 우리성 연구에서 정, 안정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는 우리성의 구성요인으로[9, 17, 18], 감정적 연대감과 동질감, 동류의식 등으로 정리되고 있는 관계적 밀착을 통해 느끼는 안정감과도 일맥상통하는 요인이다.

둘째, '배려적 관계'이다. 도출된 하위 문항은 '상대를 배려함',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함', '수용하고 공감함', '사생활을 존중함'이다.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 한국인의 정과 우리관계가 가지고 있던 무조건적 관계지향과는 차별화된 요인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생활 존중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초등 교사들이 우리성을 느끼는 상황에는 단순히 편하고 우호적인 관계뿐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윤리적 정당성'이다. 도출된 하위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불공평하게 대함', '일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음', '나의 일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음', '불편함', '계산적으로 대함'이다. 초등 교사들은 상대방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공평하고 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성의 하위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과 우리성이 가진 관계지향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윤리적 정[23]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초등 교사들은 관계의 윤리를 지키는 대상을 우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정과 우리성에서 한국인의 우리성으로 다루었던 관계지향성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성의 하위요인에서 관계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다른 하위요인과는 달리 '윤리적 정당성'은 상관이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넷째, '시간의 공유'다. 하위 문항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 '자주 만남'으로 구성된 이 요인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우리성을 말한다. 초등 교사들은 추억을 공유하고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이에서 정이 들고 우리라고 느끼는 사이를 만들고 있었다. 본 요인은 유아교사의 우리성 연구[14]에서도 '공헌존'이라는 하위요인 명으로 제시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전통적 우리성 연구에서 역사성[18]으로 지속적 접촉[23]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제시된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

식하는 우리성 인식구조는 '심리적 안녕감', '배려적 관계', '윤리적 정당성', '시간의 공유'이며,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초등 교사들이 우리성을 느끼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성이 개인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반, 우리 학교 등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적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문화와 교직문화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밝힌 우리성 인식구조는 유아교사나 중등교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각 학교급 별로 교사의 우리성 인식구조를 밝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이 느끼는 우리성의 인식 구조와 범위 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서에 맞는 학교문화 형성과 학교구성원간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우리성 구조를 탐색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을 탐색한 양적연구이다. 양적연구의 결과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교화 하거나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ergiovanni, T. J. (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s. San Fransisco, CA: Jossey-Bass.
- [2] H. W. Kim, Y. H. Choi, and D. T. Kwon(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eachers' Cooperation and Teachers' Satisfaction in the Innovational and General School.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2), 87-105.
- [3] T. Y. Kim, S. B. Choi and H. J. Joo (201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ffectiveness and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6), 117-142.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1.28.4.305>
- [4] C. G. Kim, S. L. Lim and W. J. Choi (2009). A study on the relevant factors of teachers' school satisfaction - the teachers' social capital, self-efficacy and teaching skill, and the roles of principal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9(3) 79-99.
DOI:<https://doi.org/10.32465/ksocio.2009.19.3.004>
- [5] Gregory, A., and Weinstein, R. S. (2004). Connection and regulation at home and in school: Predicting growth in achieve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405-427.
DOI: <https://doi.org/10.1177/0743558403258859>
- [6] J. B. Kim and J. Y. Kim (2014). Effects of Perceptual Differences i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 and Teacher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Instructions: Relating with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tudents' Peer and Parental Trus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1(3), 245-267.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4.31.3.245>
- [7] Y. J. Song (2015). The Relation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4(2), 53-71.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5.24.2.04>
- [8] S. J. Lee (2015). The Change of School satisfaction for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2), 569-588.
- [9] W. S. Hong (2005).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relationship as 'we' of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2, 219-237
- [10] Y. G. Lee, S. H. Jeong (2006) Impact of Indigenous Psychology of organizational member on Innovative Behavior : Focus on the Chemyon, Weness.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15(1), 33-70
- [11] W. H. You (2014) The impact of teachers' 'we'-ness and coping styles on the effectiveness of school organization.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12] B. E. Choi(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econdary School Teachers' Job-related Stress Associated with Inclusive Education and Weness. Master thesis, Deajin University of Education, Kyeonggido, Korea.
- [13] M. G. Kang(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b-related Stress Associated with Inclusive Education and Weness. Master thesis, Deajin University of Education, Kyeonggido, Korea.
- [14] K. S. Chung, H. C. Park, S. S. Gu, H. J. Kim, H. K. Park, H. H. Son (2018) Suggestions for Realization of Ddadeutan Educ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Concepts of Cheong and Wooriuisik(wen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849-873
DOI:<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849>
- [15] K. S. Chung, H. K. Park, H. H. Son (2019) The structur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of we-nes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1235-1263
- [16] Heide. Yang(2013) Study on in-depth understanding of weness and developing a valid measurement instrument : Focused on employees in public enterprises. Doctoral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 [17] S. J. Choi, E. C. Kim, S. Y. You, J. J. Lee(1997). Representation of Koreans 'Cheo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resentation book, 1997(1), 553-573
- [18] S. J. Choi, (1993).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Wenes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resentation book, 1993(1), 229-5244
- [19] S. C. Choi, J. J Lee (1999). The Psychological Interior and Social-Cultural Functions of Korean Cheong.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1), 219-234
- [20] S. C. Choi, J. Y. Kim, K. B. Kim(200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eong, and Its Actions and Function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14(1) 203-222
- [21] H. W. Sik. (2005). Korean 'We - relationship' and Its Philosophical Background,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2, 219-237
- [22] S. Y. Kim. (2016). Basic and Extens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kgisa.
- [23] M. S. Ko(2004) The Establishment of Ethic of Cheong : Focused on the Relation with Ethic of Caring,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2), 1-29
- [24] S. A. Lee(2010) Korean and German Pre-Service Teachers' Beliefs 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Anthropology of Education, 18(2), 57-92
DOI:<http://dx.doi.org/10.17318/jae.2015.18.2.002>
- [25] H. E. Kim, S. J. Kim(2014) Korean and German Pre-Service Teachers' Beliefs 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2), 97-121

김 효 정(Hyo-jeong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6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08년 3월 ~ 2010년 8월 : 부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임연구원
- 2011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 2016년 8월 ~ 현재 :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강점탐색, 액션러닝, 커리어앵커, 앙트러프러너십, 교수체제 설계, 커뮤니티 설계

박 상 완(Sang-wan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학박사)
- 2004년 1월 ~ 2004년 8월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2006년 10월 ~ 2007년 8월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20011년 2월 ~ 2011년 8월 : OECD/CERI 파견근무
- 2004년 8월 ~ 현재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행정, 교육거버넌스, 교사교육, 학교조직